

광주·전남 국립공원 쓰레기 늘었다

다도해국립공원은 생활쓰레기, 지리산은 음식물쓰레기로 몸살 코로나 이후 관광객 증가...캠핑 인기에 야영장 쓰레기 발생 ↑

광주·전남지역 국립공원이 탐방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탐방 중간에 버려지는 쓰레기 외에도 캠핑의 인기로 인해 야영장에서 버려지는 생활·재활용·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했다는 것이 국립공원 측의 분석이다.

30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광주·전남 4개(무등산, 지리산, 전남, 월출산,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중 다도해해상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은 4개 국립공원 중에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가 지난해 기준 34.7t으로 가장 많았다.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는 2020년 8.7t에서 2021년 1.5t으로 급감했지만 이듬해 9.7t으로 폭증했고 지난해 6.5t이 버려졌다.

반면 생활계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20년 34t이던 쓰레기 수거량은 2021년 31.9t, 2022년 29.8t, 지난해 34.7t으로 꾸준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해 4.3t이 버려져 전년 2t

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제는 탐방객이 줄고 있는 데도 버려지는 쓰레기량은 늘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86만 2664명이던 다도해 국립공원 탐방객은 2021년 188만 3904명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215만 9157명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178만 6956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탐방객이 늘어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한 곳도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 사무소의 탐방객은 2020년 266만 9076명에서 지난해 380만 7428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는 1.6t(2020년)에서 2023년 2.2t으로, 재활용 쓰레기는 2.2t(2020년)에서 2023년 2.9t으로 증가했다.

2020년 32만 8155명에서 지난해 52만 9976명으로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월출산 국립공원도 쓰레기 양이 증가했다.

생활계 쓰레기는 지난 2020년 10.6t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9.9t을 기록했다. 재활용 쓰레기

역시 2020년 5.8t에서 지난해 6.3t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생활계(2020년 16.1t→2023년 14.6t), 재활용(5.7t→3.1t)분야는 감소했으나 음식물 쓰레기는 2021년 0.5t에서 2023년 1.2t으로 늘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쓰레기는 산행 중 발생하는 쓰레기 외에도 대다수가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가장 많은 생활·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된 다도해 해상의 경우 완도 구계동, 고흥 염포, 고흥 팔영산 야영장 등 광주·전남 국립공원에서 가장 많은 3개 야영장이 설치돼 있다.

지리산은 전남에는 야영장이 없으며 경남에 3곳(함양, 산청), 전북에 3곳(백사골, 달궁, 덕동)이 마련돼 있다. 월출산에는 천황 야영장(영양), 무등산에는 도원야영장(화순)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양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며 "공단에서는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서구 치매안심센터 이용하세요 한 시민이 최근 광주시 서구보건소 2층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분소에서 지원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는 매주 월~금요일(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치매 인지 선별검사(CIST) 및 치매환자 등록자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 서구 제공>

남구 복지콜, 지난해 1만2716건 상담

행복한 복지 7979센터

광주시 남구가 운영하는 '행복한 복지 7979센터(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1만2716건의 복지콜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센터 성과보고서 결과 평균 하루 57번, 1시간에 7번 복지콜이 울렸으며, 현장 출동도 하루 평균 6차례에 달했다.

센터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22일간 문을 열었다. 이 기간 센터는 원스톱 복지콜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복지콜은 지난 2020년 1만1957건에서 2021년 1만1998건, 2022년 1만2029건, 2023년 1만2161건, 2024년 1만2716건의 복지 민원을 상담했다.

또한 7979봉사단은 하루 평균 6.5차례 현장에 출동해 취약계층 가정의 오래된 전기기와 가스라이터, 수전, 방충망 교체를 도왔다. 또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해 아·미용 봉사도 펼쳤다.

남구 관계자는 "센터는 올 한해 개인별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더 행복한 남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북구,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공동 협력

한국환경공단·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와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 협약

광주시 북구가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7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북구는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협회)와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폐건전지 보상 수거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활용품 수거율을 향상하고 자원 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 운영', '폐건전지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단은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운영 비

용'을 지원하고 협회는 '보상용 새 건전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북구는 '폐건전지 수거·인계', '수거함·보상품 관리'를 도맡기로 했다.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년간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설치돼 무인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된다. '폐건전지 0.8kg(약 20개)'당 '새 건전지(AA 또는 AAA) 1세트(2개)'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 협력체계 구축을 계기로 자원 순환의 소중함에 대한 주민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자원 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이 필수요소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신용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 <광주시 북구 제공>

'1인가구 정책 발굴 위한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재단)이 '광주광역시 1인가구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광주시 제1차 1인가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강화해야 할 1인가구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1인가구 지원 정책과 관련해 청년 여성 대상 주거안전 사업, 통합 돌봄 사업 등이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담겼다. 또 향후 1인가구 사업들을 진행할

에 있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1인가구 사업들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포함됐다.

재단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에 1인가구 추진체계 강화, 1인가구 정책 통합 정보 제공 강화, 기존사업과 1인가구 사업간 연계,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정책 강화, 1인가구 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재단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국내외 1인가구 우수 사례를 사회적 관계망·경제적 지원·주거지원·안전지원·건강지원·인식개선 영역으로 구분해 연령별·성별 1인가구 정책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햇팍보다는 장갑·목도리, 생수병 대신 텀블러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시대 친환경 집회 7가지 수칙 제안

광주·전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매주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친환경집회를 위한 7가지 수칙을 제안했다.

7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기후위시대 친환경 집회를 위한 수칙이 적힌 이미지를 제작했다.

일곱가지 수칙을 보면 첫번째는 추운 날씨에 핫

팍보다는 장갑과 목도리, 내복과 담요 등을 준비해 따뜻하게 옷을 입는 것이다.

두번째 수칙은 최근 집회에 연예인 응원봉을 지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응원봉을 구입하지 않고 종이팩 등을 활용해 제작하자는 것이다.

그외에도 생수병과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활용할 것, 간식은 대화용기에 먹을만큼 쟁겨

와 비닐 쓰레기를 줄일 것, 바닥갈래, 피켓은 다음 집회에 다시 사용할 것,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집회 후 뒷정리를 함께 해 선진 집회문화를 다 같이 이끌어 가자는 내용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최근 1020세대를 중심으로 탄핵촉구 집회가 진행됐고, 이후 매주 집회가 이어짐에 따라 집회에 참여한 젊은 세대들이 환경을 생각해주면 기후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해외에서도 관심있게 보는 우리나라 집회문화에 친환경까지 더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